플래스틱 코스트 경쟁력 개선?

산자부, 제조업 코스트 경쟁력 약화 … 임금상승률 지나쳐

제조업 부문의 비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광공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140개 업종의 65.7%인 92개 업종의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 업종은 코크스 및 관련제품, 비철금속 제1·2차 제련 및 정련, 철도장비 등으로 각각 30.8%, 16.2%, 14.8% 증가해 비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가·우주선, 원유 정제처리 부문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별 단위 노동비용 동향

구분	증가율	업종수 (비중)	주요 업종 예시
감소	-10%이상	3개 (2.2%)	컴퓨터·주변기기, 전자관·기타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장비
	-10--3%	7개 (5.0%)	기록매체복제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절연선 및 케이블,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자전거·장애자용차량
	-3-0%	38개 (27.1%)	전분·당류, 증류주·합성주, 제사·방적·직조, 섬유표백·염색·가공, 편조업, 신발, 기초화합물, 유리 및 유리제품, 내화요업, 비내화요업, 콘크리트·시멘트, 철강압연·압출, 비철금속압연·압출, 베어링·기어, 전동기·발전기·전기변환장치, 방송수신기·기타영상·음향기기, 의료용기기, 자동차용엔진·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건조·수리, 귀금속·장신구, 장난감·오락용품
증가	0-3%	47개 (33.6%)	맥아·맥주, 낙농업, 국수류, 조미료, 직물제품, 의복, 모피, 가방·핸드백·마구류, 펄프·종이, 신문·정기간행물발행업, 비료·질소화합물, 제1·2차 플라스틱가공, 시멘트·석회, 제철·제강, 철강주조, 비철금속주조, 구조금속, 수공구·일반철물, 농업용기계, 섬유·의복기계, 전기공급·제어장치, 전구·조명, 사진·광학기기, 시계·시계부품, 가구, 악기
	3-5%	17개 (12.1%)	빵·곡분과자, 골판지·종이용기, 인쇄관련서비스,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비누·화장품, 화학섬유, 일반도자기, 가공공작기계, 건설·광산용기계, 운동·경기용구
	5-10%	20개 (14.3%)	동식물성유지, 설탕, 발효주, 얼음·비알콜성음료, 가죽,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화학제품, 도료·인쇄잉크, 고무타이어·튜브, 금속처리, 엔진·터빈, 산업용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축전지·일차전지, 이륜자동차
	10% 이상	8개 (5.7%)	담배, 코크스·관련제품, 원유정제처리, 비철금속 제1·2차 제련·정련, 철도장비, 항공기·우주선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 - 노동생산성 증가율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연평균 단위노동 비용은 12.2% 하락했으며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과 ,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등도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 지난 8년간 생산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87개 업종이 10% 미만의 한자리 수 생산성 증가에 그친 가운데,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등은 30%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비철금속 제1·2차 제련·정련,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등은 20%를 초과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 세분류 업종별 노동생산성 동향

증감률	업종수 (비중)	주요 업종 예시
20% 이상	9개 (6.4%)	코크스·관련제품, 비철금속 제1·2차 제련 및 정련, 컴퓨터·주변기기, 전자관·기타전자부품, 통신기기·방송장비, 맥아·맥주
15-20%	7개 (5.0%)	합성고무, 오락·경기용보트 건조·수리, 자전거·장애자용차량, 기타 운송장비
10-15%	37개 (26.4%)	전분 및 당류, 설탕, 증류주·합성주, 제사·방적·직조, 편조업, 모피, 기초화합물, 화학섬유, 유리·유리제품, 내화요업, 비내화요업, 콘크리트·시멘트, 베어링·기어·전동요소, 절연선·케이블, 의료용기기, 사진·광학기기, 자동차용엔진·자동차, 자동차 차체·트레일러, 자동차부품, 선박 건조·수리, 철도장비, 귀금속장신구
5-10%	69개 (49.4%)	곡물가공, 조미료, 발효주, 얼음·비알콜성음료, 직물제품, 의복, 가방·핸드백·마구류, 신발, 펄프·종이·판지, 골판지·종이용기, 비료·질소화합물, 도료·인쇄잉크, 의약품·의료용화합물, 비누·화장품, 일반도자기, 제철·제강, 철강주조, 비철금속주조, 구조금속, 수공구·일반철물, 엔진·터빈, 농업용기계, 가공공작기계, 전동기·발전기, 축전지·일차전지, 전구·조명, 시계·시계부품, 항공기·우주선, 악기, 장난감·오락용품
0-5%	17개 (12.1%)	빵·곡분과자, 담배, 가죽, 신문·정기간행물발행업,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화학제품, 고무타이어·튜브, 산업용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건설·광산용기계, 가구, 운동·경기용구
감 소	1개 (0.7%)	핵연료가공

+ 노동생산성 = 업종별 불변 GDP/업종별 근로자수

반면,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건설 및 광산용 기계 등은 5% 미만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해 생산과 고용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제사·방적·직조, 화학섬유 등 섬유업종과 비철금속, 자동차 등은 산출은 증가하면서 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 감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죽제품, 가방, 의약품 등은 생산시설 노후화, 합리화 투자 지체, 노동시장 경직 등으로 생산이 감소했음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자원부는 노동생산성 분석결과에 대해 생산성, 노동비용 등 관련 지표가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노동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업종에서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등 비용경쟁력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노동생산성이 업종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제조업 중분류로 발표되고 있는 생산성 지표를 세분류 업종으로 개선해 나가고, 세분류 업종별 노동생산성 자료를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등을 통해 민간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0>